

보도일시

2026. 8. 27.(목)

배포

2026. 8. 27.(목)

동해해수청, 고성대진항 암초에 등표 설치 - 어선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8월 26일(수) 강원 고성군 대진항 북동쪽 해역에 위치한 암초 주변에 고성대진항북방등표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표 설치 공사는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2월 착공하여 약 6개월만에 준공되었다. 설치된 등표는 높이 14m 규모의 원형 강관 구조물로, 야간에도 약 15km(8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등화를 식별할 수 있다.

등표가 설치된 위치는 대진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암초 주변으로, 이 해역은 여름철 해무가 발생하거나 기상 악화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선박의 좌초 및 충돌 위험이 높은 곳으로 그동안 지역 어업 종사자들의 항로표지* 설치 요청이 지속되어 왔다.

* 빛, 소리, 전파 등을 통해 선박을 안전한 항로로 안내하는 시설물

특히 동해안 최북단 어장인 저도어장* 개장 기간에는 제한된 입어 시간에 맞추어 많은 어선들이 동시에 항해한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 시간대에는 암초 충돌 위험이 컸으나, 이번 등표 설치를 통해 어선들이 보다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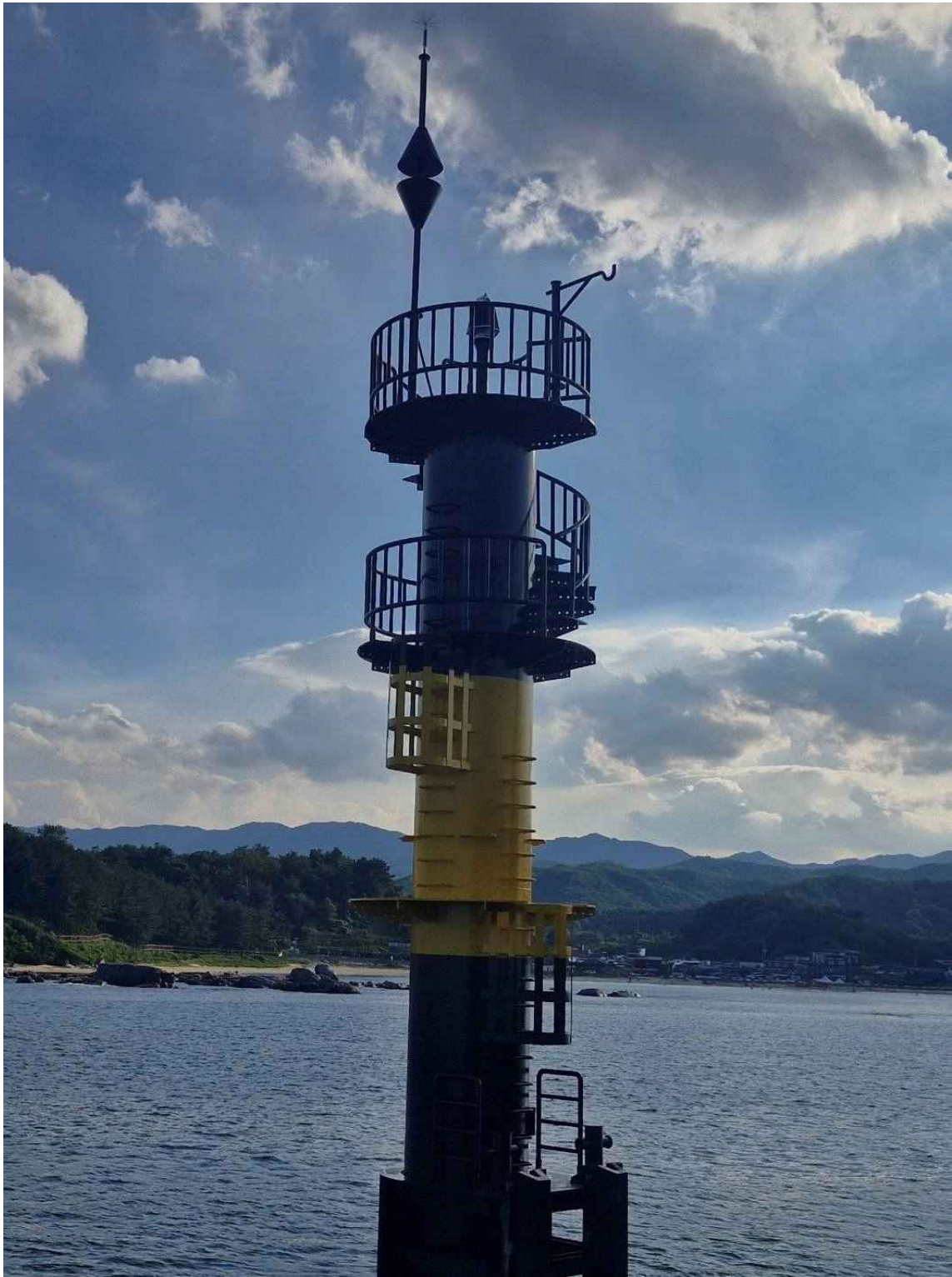
* 북방한계선과 1km 떨어진 동해안 최북단 어장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장한다.

또한, 그동안 마을 주민이나 관광객이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난 간출암을 잠수함으로 오인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등표 설치로 인한 오인 신고 감소 효과도 예상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등표 설치로 지역 어민들이 더욱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해상 위험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최금성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김관우 (033-520-6277)





고성 대진항 북방등표 전경